

여배우 자매에 무슨 일이?

극단 청춘 스릴러물 '그 자매에게...' 18~20일 서구문화센터

극단 청춘이 심리 스릴러물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무대에 올린다. 18일(오후 8시), 19일(오후 7시), 20일(오후 5시) 광주시문화센터.

해피 페럴의 대표 희곡으로 정복근씨가 재창작, 국내에서 여러 차례 공연됐었다.

지금은 은퇴한 여배우 블랜취와 제인은 크고 음울한 저택에서 단 둘이서 산다. 제인은 한 때 아역스타였지만 젊은 시절에는 엄청난 스타로 성장한 언니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고 이제는 술에 빠져 산다. 제인은 자신이 영화배우로 성공하

지 못한 것은 언니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질투하면서, 언니를 불구로 만든 사고에 대한 죄책감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

극단 대표 오설근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은미·채희영·문진화·김경오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000원. 전화 및 카페 예매 30% 할인, 자매끼리 관람하면 50%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청춘의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헌사"

임원식 광주시인협회장
열한번째 시집
'어머니의 베들소리' 펴내



임원식 시인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한다. 인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천심천연(天心天緣)의 관계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 어머니라는 천사를 보냈다는 말이 있다. 어머니는 천사의 다른 이름이다.

고희를 훌쩍 넘겼음에도 여전히 어머니를 모티브로 시를 쓰는 시인이 있다. 해남 출신 우전(宇田) 임원식 시인. 그는 올해 광주시인협회(이하 시인협회) 회장직을 맡아 안팎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열한 번째 시집 '어머니의 베들소리'(시와 사람)를 펴냈다.

지난해 열 번째 시집 '나무도 사랑을 안다'(시문학사)로 문학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던 시인은, 이번 시집으로 다시 새로운 문학 여정을 향해 첫 걸음을 댄 것이다. 이번 작품집에도 지나는 시간들의 편린에 정갈한 언어와 감성적인 어조로 갈무리돼 있다. 특히 시집에는 시인의 작품 '오는 봄' '달맞이꽃' 등 모두 6편에 곡을 붙인 김진우 작곡가의 악보가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임 시인은 "어머니는 생명을 준 뿌리이며 고향은 나고 자란 공간"이라며 "이번 시집은 영혼의 집인 어머니와 신체의 성장 자리인 고향에 대한 헌사"라고 말한다. 또한 시인은 고향에는 어머니의 정신적인 유산과 감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당첨도 풀었다 베들신 끌어 당기

면/ 씨실이 열리면서 복은 가슴에 시를처럼 들락거려/ 닳새 고운 삼베가 도투마리에 감기고 그 섬세한 손놀림으로/ 새끼들의 알몸 위에 날개를 달아 푸른들 휘어터 날려보내셨지."

표제작 '어머니의 베들소리'는 어머니로 상징되는 고향과 시인의 내면에 자리한 정신적 뿌리를 형상화한 서사시이다. 일상적 체험과 기억, 사유가 융합된 시어에는 진중한 울림이 깃들여 있다. 특히 고(故)오승은 화백의 배를 짚는 어머니를 형상화한 '직녀도'가 표지로 장식돼, 시적 주제와 맞물려 아련한 향수를 선사한다.

해설을 쓴 박이도 시인은 "이 시집에 담긴 시편들은 온갖 사물의 소리와 풍경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재진행형으로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며 "마지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본능처럼 고향을 찾아가는 의식으로 지난 세월을 복원해 낸다"고 평한다.

한편 시인협회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광주농성동 지하철거광장에서 '사랑을 신고 가는 시와 그림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시화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인의 시가 수록된 시집 500권을 시민들에게 나누주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리 인생' 최고의 영광... 더욱 매진해야죠"



제23회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마미숙씨. <조선일보 제공>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마미숙씨

광주에고 1학년 때 판소리 입문
심청가 완창무대 준비하겠다

"소리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중 하나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대통령상을 목표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14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내린 제23회 임방울국악제에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상금 2000만원·순금 트로피)을 수상한 마미숙(48·광주시 북구)씨는 "앞으로 '심청가' 완창 무대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 씨는 이날 경연에서 '심청가' 중 애절

한 대목인 '추과포혜'를 불러 상을 받았다. 마씨는 본선에서 경합을 벌인 김연옥(38)씨와 동점을 받았으나 점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상을 수상하는 대회 규정에 따라 영예를 안았다.

곡성 출신인 마씨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광주예술고등학교 1학년 때 판소리를 시작했다. 전남대 국악과를 거쳐 광주시립국악단 창단시 학생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정식 단원으로 1999년까지 근무했다.

조상현씨 등으로부터 강산제 보성 소리를 사사한 그녀는 "다섯 바탕 중에서도 특히 '심청가'를 좋아하는데 소리의 애절함이 마음에 든다"며 "다른 소리에 비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강산제를 좀 더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체력을 기르고 연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마씨는 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 경연

대회 일반부 대상,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판소리 명창부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남부대, 광주예술영재교육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올해 경연에서는 학생부, 일반부, 명창부 등 총 72명(팀)이 입상했으며 총 상금은 1억 7000만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판소리 명창부뿐 아니라 기악, 무용 부문에서도 동점이 나오는 등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판소리 명창부 ▲최우수상 김연옥 ▲우수상 김경아 ▲준우수상 조혜정 ◇기악 일반부 ▲최우수상 이승철 ▲우수상 김용성 ▲준우수상 심수아 ▲장려상 윤연성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 정윤형 ▲우수상 이세현 ▲준우수상 왕윤정 ▲장려상 김명진 ◇무용 일반부 ▲최우수상 유혜림 ▲우수상 김민주 ▲준우수상 이지영 ▲장려상 양서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

오영상 사무처장

전남문화예술재단이 내년에 문화관광재단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오영상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문화재단 사업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올해 사업에서 방점이 찍힌 부문은 개혁을 위한 자체 조직정비다. 전남문화재단은 1단계로 업무영역 등을 조정하는 내부 조직체제를 정비한 뒤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문화관광재단

은 전남도·문화재단·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연구가 마무리되는 내년에 출범한다.

문화재단이 출범 6년만에 조직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풍부한 전남의 문화자원을 관광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전남도의 브랜드 시책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해 섬 특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품,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2016년 하반기에

광주시립미술관이 맡고 있는 서울 갤러리 GMA를 공동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을 뒷받침하고 출향 작가들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나주를 중심으로 한 영상각 유역 고대고분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역사문화 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2016년께 본격 추진된다. 전남의 섬과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섬·숲' 문화유산 조사 및 자료 아카이빙 사업도 2016년~2018년까지 추진 되는 주요 현안에 포함됐다.



문화재단은 내년 부터 전남도립국악단 대표 브랜드 공연과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융·복합 부문에서는 예술과 전통, 생활, 생태 관광 등을 연계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예술관광, 생태예술을 주제로 한 관광 상품이다.

오영상 전남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은 "전남 문화브랜드를 개발하고 문화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창조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15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한책 특 콘서트

18일 전남대 용봉홀

'1그램의 용기' 한비아 강연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가 오는 18일(오후 2시) 국제회의동 2층(용봉홀)에서 '2015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한책 특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특 콘서트는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1그램의 용기'의 저자 한비아 작가가 <사진>조청 강연에 이어 작가와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광주·



전남시·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으로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를 진행해오고 있다. 시·도민의 직접 투표로 한권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하며 이야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2만3453명이 투표에 참여, '1그램의 용기'를 '2015 한책'으로 선정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크리마,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동 010 68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